

“ 최저임금 지키고 올리는 싸움, 금속노조가 앞장선다”

31일 안산역 광장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 지키는 지름길은 노동조합 가입”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키고, 올리는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1월 31일 경기 안산시 안산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폐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2018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공단지역 무



후러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라고 설명했다. 서다윗 지회장은 “매년 수백 억원씩 배당 받아오는 정몽구 일가의 반대편에 2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받아오는 여성노동자가 있다. 한국은 제 욕심은 털끝 만큼도 버릴 생각이 없는 무능한 시장의 나라다” 라고 비판했다.

노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위한 온갖 불법, 편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을 지키고 2019년 최저임금 올리는 싸움에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에 금속노조가 적극 나설 것이다”라며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 가입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규모있고 강력한 금속노조에 가입해 함께 권리를 지키자” 라고 호소했다.

정현철 노조 경기지부 경기지역금속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자본과 언론은 노조가 주 5일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쟁취 투쟁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였다. 최저임금 오르는 게 문제라는 호들갑 속에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을 줄이는 꿈수들이 잇따르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과 재벌의 악랄 경제행위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다윗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자동차 시트커버를 만드는 성진씨에스라는 회사가 3월에 폐업한다고 한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씨트, 현대다이모스, 현대기아차에서 납품단기를 너무

서다윗 지회장은 “최저임금 투쟁은 한국 사회 생산구조, 부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투쟁이다. 자본이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공격하며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고 역공에 나섰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을 지키는 모습은 중소기업세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태도에서 알아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는 투쟁을 전국에서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2월 한달간 전국의 공단지역에서 선전전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여는 날에 맞춰 전체 지부가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면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투쟁 나설것”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탈법행위와 제도개악, 자본과 언론의 왜곡주장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월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최저임금사업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 사례를 폭로했

다. 또,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개악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배 이상 오른 임대료, 이름만 빌려주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짐 싸고 장사 접는 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며 “재벌 중심 사회를 뒤집는 을과 을의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고', '상시적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이라고 적힌 종이막에 콩주머니를 던지는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이제 마침표를 찍자”

대구지검 본관 앞 연좌농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즉각 기소하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며 대구지방검찰청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경북권지부와 아사히비정

규직지회,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노조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1월 31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서한을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다. 대구지검은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했다. 이날 아사히글라스 건 담당 관청인 검찰 김천지청의 정승면 지청장이 비위혐의로 감찰을 받다 자살 시도를 했다.

지회는 “김천지청장이 사건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리한 김천지청이다. 김도형 담당 검사도 아사히글라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어찌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아사히 관계자와 정승면 김천

지청장, 김도형 검사의 면담기록과 비밀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 1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회사 측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에 과태료 1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도형 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5천 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서울 목동, 광화문, 여의도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 17만 금속노조는 여전히 삶의 벼랑 끝

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이전략 노조 포항지부장 겸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

년 7개월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대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전략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조업 직접 공정 파견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하며 김도형 검사가 법복을 벗고 처벌 받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본부는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에 맞선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떻게 연대하고 책임질지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자본과 검찰이 우리 투쟁이 불법이라고 해도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굽히지 않고 싸워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